

“봉축 맞아 남북합동법회 봉행하자”

법타 스님, 6일 민주본 간담회서 北에 공개제안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이 북한 측에 ‘남북불교도 합동(공동) 봉축법회 및 연등달기’를 공개 제안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정세 속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불교계 교류 및 방북순례 추진을 다짐했다.

법타 스님(사진)은 4월 6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6년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주본) 사업기조 및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본부장 법타 스님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 측에 봉축맞이 남북불교도 합동(동시)법회를 통한 공동발원문 채택과 연등달기를 공개 제안했다.

법타 스님은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평화 협력은 정진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면서 “조불련 측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봉축 합동(동시)법회 및 공동발원문 채택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본은 오는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9주년을 기념해 1,200명 방북순례를 추진하는 한편, 6월 8일(민주본 창립일)~10월 13일(신계사 복원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타 스



“인도적 평화 교류 필요해” 통일기원 연등달기 진행도

교육사업·전문위원단 신설 등 올해 민주본 사업 기조 발표

님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계에 1만 2천 연등 달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민주본은 내실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사업 체계화 및 확대 △전문위원단 신설 △후원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법타 스님은 “재가불자, 스님 등 모든 불교계 구성원들이 ‘통일 보살’이 될 수 있도록 불교적 사상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또한 중단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별개로 보다 폭넓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본 후원기구를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전부지 환수, 현대차 응하라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원명)는 4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한전부지 개발계획 중단 및 환수 촉구 2차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한전부지 환수위 집행위원장 법원 스님 등 500여 불자들이 참석해 군사정권시절 불법 강탈한 봉은사 토지의 반환과 개발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故한광호 노동자 죽음, 진상 밝혀라”

불교 등 4일 추모관 설치

유성기업 노동자 故한광호 씨의 사망에 3대종교가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 ‘추모 기도회장’을 설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함께 4월 4일 서울시청 앞 서편 광장에 ‘유성기업 故한광호 노동자 추모 기도회장’을 설치했다.

양한용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유성기업 노동조합 등에서 고인을 위한 분향소 설치를 서울시 및 경찰 측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한 노동자가 정의를 외치며 죽어갔는데도 무관심한 세대에 한탄하는 마음으로 유성기업 노사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대종교가 나섰다”고 설명했다.

도철 스님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건 극한의 상황이란 뜻이다. 유성기업 내부에서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 아주 심했던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유성기업(사측)은 즉각 노조와 만나 한광호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대해 진상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경상권 사찰 목판·금석문 탁본 ‘한눈에’

경상권 사찰 목판과 금석문 탁본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공동으로 조계종 문화재 관련 기관이 만들어 낸 성과로서 더욱 의미가 깊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강)는 문화재청과 함께 지난해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 《한국의 사찰문화재-2015년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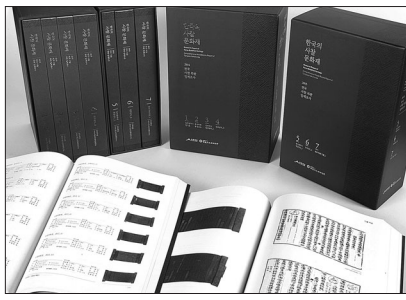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시행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밀양·함양·합천) 소재 6개 사찰 소장 목판 5,505점에 대한 조사자료와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에 소장된 중요 목판 21종 615판(총 4,401장)에 대한 인출(印出)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조사를 통해 27점의 목판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던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실제 목판 마구리 결손 등의 이유로 다른 목판으로 파악됐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총 14종 1,070점의 정보를 바로잡았고, 총해(蠹害) 등으로 손상된 목판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 격리 수납조치 시키는 등 목판 보존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함천 해인사에는 널리 알려진 대장경판(판판대장경판) 외에도 <남계집> 등 조선 후기 문인들의 시문집 목판이 4,700여 판 소장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사찰과 불교계가 불법의 수요뿐만 아니라 당대 유학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조선 후기 출판인쇄문화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사찰 목판 조사 사업은 2014년부터



불교문화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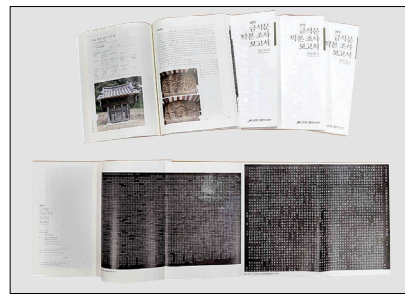
사찰 목판 조사 보고서 발간
울산·경남권 사찰 일제 조사
5505점 목판 보존 방안 마련

2019년까지 6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통영·고성·남해 등), 경상북도(경산·성주·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4,180점의 목판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이 문화재청과 함께 경상북도에 있는 금석문 현황과 탁본자료를 집대성한 《2015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상북도 II》도 중요한 연구 성과물이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조사한 경북(상주·영주·영덕 등) 지역 금석문 60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록했다. 육안으로 비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탁본 사진을 비롯해 크기·재질에 대한 실측 자료, 유물에 대한 설명과 보존 상태, 비각(碑閣, 금석문이 새겨진 비를 보호하는 시설물)을 포함한 주변 유적 현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탁본이 이루어지지 않았



불교중앙박물관

금석문 탁본 조사보고서 내보
경북 지역 금석문 60기 조사
조사 못한 탁본들 대거 인출

던 금석문 자료를 상당수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는 ‘상주 노흥신도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상주 관음사지 사적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18호), ‘군위 장사진 유허비’ (경상북도 기념물 제122호), ‘예천 명봉사 사적비’ (비지정문화재), ‘구미 남강 박진환묘표’ (비지정문화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영주에 있는 ‘비로사 진공대사 보법탑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는 최근 수습된 비편도 함께 탁본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기존 금석문 자료 중 비의 이름이나 비문 판독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이 같은 성과는 오는 8월 14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2016 금석문 탁본전’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전시에서는 조사의 결과물인 고품질의 탁본 28점을 감상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암 투병 80대 노스님, 동국대에 기부

지인 스님, 전 재산 5억 원 전할... “훌륭한 인재 배출 부탁”

취재팀으로 투병 중인 80대 노스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동국대에 전액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부산 정수사 주지를 역임한 지인 스님이 지난 3월 24일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대외협력처(처장 이관제) 관계자를 만나 발전기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지인 스님은 고등학교생이던 17세에 해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 30여 년 이상 교도소와 군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개인 차량도 없이 오직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다녔다.

대중교통만으로 전국 포교

휴지 말려 쓰며 모은 돈 기부해

또한 80세가 된 지금까지 휴지 한 장도 말려 쓸 만큼 청빈한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온 지인 스님은 인재발사를 위해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대외협력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인 스님은 간으로까지 암세포가 전이돼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총장 보광 스님은 3월 30일 오후 직접 병원을 찾아 지인 스님을 문안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광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갖춘,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명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사진 오른쪽)이 자신이 평생 모은 5억 원을 기부한 지인 스님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다. 지인 스님은 현재 취재팀 암 투병 중이다.

품인재를 길러내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많은 학생들이 스님의 도움으로 다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됐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인 스님은 “기부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길 희망한다. 동국대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서 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인 스님의 뜻에 따라 이번 기부금을 인재양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한국불교명예의전당 선정 공고



(사)한국불교명예의전당에서는 불교 포교 발전에 높이 기여하거나, 전통문화와 불교예술을 발전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유·무형 성과물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 단체나 스님을 찾아 자랑스러운 한국불교명예의전당에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 ① 새롭고 활성화로 크게 불교 포교에 기여하는 종단과 단체 인물
- ② 불교 발전에 기여하며 보존 및 유지 가치가 있는 전통 문화 예술 활동에 높이 기여하고 경전 해설, 법문 등으로 크게 포교의 기수가 되어 지속적으로 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해 활동하는 자

- ①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 ② 명예의전당 특별회원으로 위촉
- ③ 불교 전통 문화 예술 관련 지도위원과 초빙 강사로 위촉
- ④ 대법원 등기로 영구 보존
- ⑤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업적 홍보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단체, 인물 또는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포교, 전통미술,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무예, 토속종교, 불교관련 연극과 음식, 건축, 전통문화, 예술품, 제조 등

박정국(동국대학교 前부총장), 하춘생(동국대학교 교수), 이재현(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김규형(동아인제대학교 교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65, 1층 (신안동, 4-3)
전 화 : 062-524-3351 / 010-3186-5501 / 010-6324-3000 / 010-2306-9990
홈페이지 : www.kbhof.org 이메일 : ohky9990@gmail.com

불기 2560년 4월 11일

(사)한국불교명예의전당 이사장